# 좁은 길과 넓은 길 걷기의 실제

## (마7:13~14)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을 중심으로 <좁은 길과 넓은 길 걷기의 실제>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증거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걷기의 실제'
유명한 만큼 그 같은 정도로 너무 추상화되어 있고 상징화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좁은 문과 좁은 길, 좁은 문을 들어서서 좁은 길을 걷는 것과 실제로 넓은 문과 넓은 길을 들어서서 걷는 것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실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걷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내 삶에서 좁은 문을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걷는 게 무엇이며, 넓은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면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서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 구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구절과 얽혀있는 오해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오해는 뭐냐 하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억압된 것이고 괴로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해라는 거예요.

억압되고 고통스러운 것, 그건 복음의 길이 아닙니다.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렇죠?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하는 것’
그리고 성경 더구나 이 신약전체의 분위기기 좁은 길을 걷는다고 그래서 어렵거나, 고통스럽거나 괴로워야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문에도 좁기 때문에 찾는 자가 적다 그랬지요, 괴로운 길이고 고통이 가득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찾는 자가 적을 뿐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은 괴롭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다음부분 본문을 보면, 믿는 자들 중에서도 거짓된 자들이 있고 실제로는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많지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넓은 길을 걸어가는데, 이 넓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 ‘고해의 바다’라 그랬어요, ‘고해’ ‘고통의 바다’라 그랬습니다.
다~ 넓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고통의 바다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넓은 길이 쉽고 고난이 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부패로 권력을 잡은 사람이 있다, 넓은 길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움베르트 에코의 ‘장미의 이름’이라는 소설 아시죠?
거기에서 보면 수도원에 살인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연쇄살인이 일어나는데 결국 잡고 봤더니 숀 코넬리가 윌리엄 수도사로 나와서 이 범인을 찾아내는데, 범인을 찾았는데 도서관 사서입니다.
호르케라고 하는 수도사인데 이 호르케라고 하는 수도사가 왜 연쇄살인을 저질렀느냐? 같은 수도사를 죽이는 거지요, 왜 죽이느냐?
그 사람 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웃음은 두려움을 없앤다,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즉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마귀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
수도사들이 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웃으면 신앙은 없어지고 만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수도원에 있는 도서관 그 안에 장서 중에 철학책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들이 쓴 작품, 이런 것들을 보고 재미있어 하고 기뻐하고 웃음을 띠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반 신앙적인 것으로 알고 죽여 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책에 독을 묻혀가지고, 침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책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게 입에 닿고 그러면서 혀에 닫고 손가락에 닿고 이러면서 다 죽게 되지요.

앙드레 지드의 '좁은 문'에서도 주인공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청교도적인 종교적 억압 때문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본 생각 위에 앙드레 지드가 좁은 문을 써 나갑니다.
이런 종교 때문에 갖게 되는 억압, 웃음을 얼굴에 띠면 안 된다, 좁은 문이란 걸 이런 비슷한 분위기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제롬과 알리사의 사랑이 성립될 수 없음을 알고 알리사가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간을 억압하고 비극으로 몰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문이라고 하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다, 이렇게 막연하게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13절 14절 현미경으로 들여다봐도 그런 말 없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이 괴롭고 슬프고 고통스럽기만 하다는 그런 뜻의 말은 없습니다.
물론 '좁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 안에 고난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억압이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넓은 길을 걷는 사람들은 아까 초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고통이 없이 살아갑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을 걷는다고 고통이 없는 게 아니지요.
오히려 좁은 길을 걷는 신앙의 선배들이 훨씬 더 기쁨을 갖고 살았지요.

자, 그러면 도대체 좁은 문이 뭘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좁은 문과 넓은 문을 말씀하실 때, 성경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아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넓은 문은 육체와 성령을 말합니다.
육체는 내 마음이 이 세상을 향해 나가게 되는 관문입니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입니다.
내 마음이 육체를 통해서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고 육체를 통해서 타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가 넓은 문입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뭡니까? 성령이 좁은 문입니다.
육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만나게 되는 것과 똑같이, 성령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와 만나게 됩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 입니까?
지금 눈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계시다가, 영원 전부터 계시다가 오신 곳이 바로 그 하늘나라입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거였어요, 길을 닦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십자가를 향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길, 하늘에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다시 하늘로 가시는 이 길 안에서 걷는 것이 좁은 길을 걷는 거지요.
거기에 이 좁은 길을 걸으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마음이 하늘로 가야 되는 것이고 넓은 길은 육체의 관문을 통하여 마음이 이 세상으로 깊이깊이 빠져 들어가서 걷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좁은 길 걷기와 넓은 길 걷기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제, 실제생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자, 먼저 넓은 길을 한번 생각해보면, 육체의 관문을 통과한다.
5차선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로 진입해 들어갈 때 쭉~ 이렇게 가다 보면 톨게이트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어느 톨게이트를 지나도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육체는 다섯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게 5감각이에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 다섯 개의 감각의 문을 통하여 5차선 고속도로처럼 5차선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육체의 문, 육체의 관문을 통해서… 이 육체의 관문이 다섯 개의 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장사를 합니다. 장사가 안돼요, 파리만 날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앞집 옆집은 다 손님들이 들어와요, 우리 집만 손님이 안 들어온다, 이런 일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육체의 관문을 통해서 육체의 눈의 관문, 귀의 관문, 촉각의 관문을 통해서 마음이 그 상황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이게 넓은 길이에요.
무려 다섯 개의 관문을 통해 내가 빠져나갈 수 있고 5차선 도로를 달리게 됩니다, 5차선 도로를 마음이 가게 됩니다.
자, 마음이 걷는 것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상황 속에 마음이 육체를 통하여 빠져 나와서 그 상황에 들어가서 걱정합니다.
이제 마음이 길을 가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일 년 내에 내가 망해서 쪽박 차게 생겼구나!’ 상상하고 추측합니다.
마음이 길을 가는 겁니다.
‘아!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내가 돈을 빌려야 되겠다’
대책을 마련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마음이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길을 가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자식을 바라봅니다.
벌써 육체를 통하여 내 마음이 자식이라고 하는 이 정황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상상하고 걱정하고 나무라고 그 속에서 자식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육체의 관문을 통하여 마음이 이 세상 안으로 빠져 나오게 되는 것, 이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걱정하는 게 달리는 것이고, 근심하는 게 걷는 것이고, 미래를 향하여 비전을 세우고 꿈을 향하여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걷는 것입니다, 넓은 길을 걷는 겁니다.

이렇게 육체의 관문을 통하여 마음이 세상으로 들어온 뒤에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효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름뿐인 하나님.
움베르트 에코가 '장미의 이름'이라고 그랬지만 그 장미의 이름이란 뜻이 뭡니까?
'옛날에 설정되어 있던 문자적 진리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이름만 남게 되는 것이다'
호르케 수도사가 '웃으면 안된다' 경건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자구에 매달려서 내용을 잃어버린, 이름뿐인 장미가 된 것처럼 넓은 길을 가면서 부르는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안 계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다는 건 뭡니까?
자, 어쩔 수없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다섯 개의 관문을 통하여 세상이 내 마음을 향하여 침투해 들어옵니다.
이때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고, 등을 돌리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사건이에요.
자식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자식문제가.
이때 자식문제를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침투해서 내 마음을 끌어내지 못하게 그 전에 십자를 바라보는 겁니다, 차단시켜 버립니다.
장사가 안 되는 가게를 마음으로 보기 전에 십자가를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내 마음이 성령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거는 십자가 위에 얹혀 져 있는 약속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 내가 죽은 것이다'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이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인데, 내 마음이 이 자식의 문제에 빠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죽은 자인데 장사가 안 되는 이 현장에 마음이 빠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 라고 씨름하고 십자가 붙잡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이 이 육체가 처하고 있어서 다섯 개의 관문을 열어놓고 들어오려고 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내 마음이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관문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몸을 통하여 세상으로 빠져들었던 것처럼 성령의 관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고 승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이 육체가 처한 상황을 빠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기독교는 금욕주의를 말하느냐?
육체경멸사상이 포함되어있냐?
이원론적인 그런 입장이냐?
아니에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몸을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몸을 대상으로 삼아서 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나의 욕망을 죽이려고 내 스스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욕망과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몸이 아무것도 아니라든지 사소한 것이라든지 몸은 멸시 받아 마땅하다든지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연합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얘깁니다, 마음이 연합하는 대상을 바꾸라는 거예요.
미술 공부하던 애가 음악 공부한다고 해서 미술을 억압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내가 내 마음이 몸을 통하여 이 세상으로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단지 내 마음이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연합하는 그 대상을 바꾸는 것이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몸으로 다른 이성과 만나 결혼하게도 하고 한 몸이 되기도 하고 자식도 낳게 하고 직업 활동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

신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몸으로 이루어진 삶의 주체를 바꾼다는 이야기이지, 이 몸에 내 마음이 붙어있으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고 내가 판단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 내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 주체를 바꾼다는 거지요, 하나님에게로.
근데 주님의 십자가가 그 마음이 몸에 붙어서 몸과 연합해서 몸이라는 관문을 통하여 이 세상과 관계하는 내 마음을 떼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타이밍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미 눈에 보이고 있는 장사 안 되는 상황이 어느 정도 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온 뒤에는 십자가를 잡기가 되게 힘들어지고 싸움이 길어집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마음이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 반드시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싸움이 길고 큰 싸움이 되느냐, 금방 이루어지는 승리의 싸움이 되느냐는 어느 정도 타이밍이냐 이거예요.
세상이 깊이 침투해 들어온 다음에 십자가를 잡으면 안 잡혀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의미도 희미해지고…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마음에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 순간에 얼른 십자가를 잡으면 싸움이 금방 끝나고 얼른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이 땅에 몸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스테반과 사도바울은 돌에 맞아죽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럴 때 거기서 찬송하고 기뻐합니다.
좁은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돌에 맞아 죽어도 기뻐합니다.
이게 좁은 길을 걷는 것의 특징이에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는데 기뻐합니까?
재산이 털리고 집안이 없어지고 가족이 나누어지고 난리 핍박을 받는 중에도 기뻐합니다.
이게 좁은 문과 좁은 길의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몸이 이 땅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움직이며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자주 쓰는 예입니다, 저 자신이 그걸 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신경이 이렇게 눈을 해부학적으로 빼보면 시신경이 있어서 뇌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신경의 길이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니다.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으면,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엊그저께인가 미국에서 그 FTA가 상하의원에서 비준이 되면서 그걸 기념해서 상하의원 합동으로 모인 자리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기립박수를 몇 번 받으셨어요.
뭐 대단한, 정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것 같이 유명한 구절 때문이 아니라 사소한 애드립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주 박수 잘 쳐요 그렇죠?
웬만하면 기립박수 쳐주죠?
자, 내 눈이 그 현장에 가 있다고 합시다.
집사람하고 집에 같이 있었어요, 눈은 상하의원 모아놓고 이명박 대통령이 연설하는 곳에 가 있어요.
무한대로 시신경이 늘어났으니까 근데 이 몸은 우리 집사람하고 집에 같이 있어요.
같이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포도를 먹다가 모든 사람이 기립하는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는 눈은 그대로 내 뇌신경에 그 현장을 찍어 전송합니다.
그러면 포도 먹다가 모든 상하 의원들이 일어나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박수를 칠 때 나도 모르게 박수를 치는 겁니다.
내 몸은 지금 집사람하고 우리 집에 있지만 시신경이 보고 있는 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은 그 눈알이 가 있는 곳에서 보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연히 억울하고 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테반의 눈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분과 보좌 우편에 인자,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나를 돌로 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새로운 바디, 새로운 몸체 역할을 해 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하여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마음이 하늘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 땅에서 몸이 움직여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움직이는 몸의 행방이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을 딸 때 그 밴쿠버 빙상경기장에 눈이 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한 밤중에 잠자던 고요한 중에라도 금메달을 따는 순간에 갑자기 이 입과 손은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함성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거라는 거예요.

가게에 한 사람도 안 들어와요, 장사가 망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앉아서 카운터에서 웃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집에서 장사하던 사람이 바쁘게 장사하다가 한가해져 가지고 가만 들여다보니까 저 집은 손님이 하나도 안 왔는데 웃고 있거든요?
왜 웃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하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상황 아버지 하나님을 뵙고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감각하게 돼, 내 마음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뵙게 되면서 장사는 하나도 안 되는데도 괜히 혼자서 부채 부치면서 웃고 있어요.
그래 옆집에서 맞은편 집에서 와서 '왜 웃어? 좋은 일 있어? 뭐 로또라도 당첨됐어?'
그 사람들은 웃는 이유가 로또와 연결되어있고 장사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넓은 길이지요, 넓은 길이에요.

육체가 접하고 빠져있는 그 상황에서 육체의 다섯 개의 관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며 사는 것이 넓은 길이고, 주님의 십자가로 육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고,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을 따라 내 마음이 하늘을 느끼게 되고 하늘나라 보좌 앞에 가 있게 되고, 사도바울의 말처럼 하늘에 앉히운 바 된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움직여 가는 것, 이게 바로 좁은 길을 걷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찾는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신나는 길입니다.
돈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길이고, 몸이 좀 불편해도 감사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
가장~ 넓게 세상을 포용할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떨 때?

세상을 떠날 때 세상을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넓은 가슴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십자가가 길이에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입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려 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의식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성령께서 오십니다.
내 마음을 끌고 올라가십니다.

내 마음에 첫 번째 증거가 평강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감사로 나타날 것이에요.
승천하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고 육체의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더 확실한 존재로 도저히 은밀하게 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내 앞에 존재하는 분으로 등장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움직여 가게 될 것이에요.
이게 좁은 길을 걷는 거지요, 좁은 문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좁은 문을 통과하시려면 반드시 십자가에 위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육체로 접하게 되는 육체를 통해 빠져나가게 되는 이 세상과 단절이 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육체 5감각을 통해 침투해 들어오는 정황, 상황에 대해 마음이 반응하며 우린 넓은 길을 걷게 되고, 이 길은 예수님 재림하셔서 오는 심판에서 멸망을 받기 이전에 이미 석가모니의 말마따나 고해의 바다에 빠지게 되는 길입니다.
이미 충분히, 멸망하기 이전에 충분히 멸망의 맛을 보게 되고 괴로움과 고통에 헐떡거리는 길이 넓은 길이에요.
넓다고 쉬운 게 아니지요, 좁다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좁은 길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정확한 타이밍에 붙잡고 내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 죽게 해 주셔서 내 마음이 세상으로 빠져나가 넓은 길 가지 않고 성령의 관문을 통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세요.

하늘나라에서 내 마음이 아버지와 주님을 대면하고 있는 동안에 이 몸이 움직이며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나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